

생방송 동시통역의 격식성 전략 :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송연석

To cite this article : 송연석 (2019) 생방송 동시통역의 격식성 전략 :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 통번역학연구, 23:2, 117-137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투 고 일 : 2019. 4. 4
심 사 일 : 2019. 4.11-4.30
심사완료일 : 2019. 4.30

생방송 동시통역의 격식성 전략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송 연 석**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이론적 배경
 - 2.1. 격식성의 정의
 - 2.2.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과 격식성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 4.1.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의 격식성
 - 4.2. 격식성 통역 전략 유형
5. 나가는 말

<Abstract>

Song, Yonsuk. (2019). Formality Strategies in Live Television Interpreting: A Case Study of President Trump's North Korea Summit Press Conferenc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23(2), 117-137

Interpreting President Trump's remarks live on TV can pose

* 본 연구는 201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unique challenges as his use of language is notably characterized by a level of formality deemed too low for a pres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rump's remarks at the US-North Korea summit press conference also lacked formality and if so, how the interpreters bridged the gap between the formality of his remarks and the Korean viewers' expectations. Using WordSmith Tools and MS Word's readability statistics, the study first analyzed the level of formality of Trump's remarks by comparing it with those of his two predecessors, George W. Bush and Barack Obama, based on four criteria: use of context-dependent simple structure, unnecessary repetition, incomplete sentences, and fillers. It then compared Trump's remarks with six paired Korean interpreters' renditions to identify and categorize the strategies they employed to enhance the formality of the interpreted remarks. It found that three strategies — preservation, addition, and deletion — were used in varying proportions, which helped improve formality.

주 제 어 : 격식성, 생방송 TV 통역, 방송통역, 통역전략, 대통령 연설

Key Words : formality, live TV interpreting, broadcast interpreting, interpreting strategies, presidential speech

1. 들어가는 말

생방송 동시통역¹⁾은 수많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언론의 비판 가능성을 인지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시청자가 유창하게 원고를 읽는 앵커와 동일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기대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스트레스, 원음이 작게나마 들리기 때문에 시청자가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 가능하다는 데 따른 부담감(Kurz, 1997)뿐 아니라, 인터넷에 영상자료로 남아 반복시청과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회의통역과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과 부담을 야기한다. 특히 대통

령 기자회견은 뉴스장르에 해당된다²⁾는 점에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뉴스는 다른 장르에 비해 격식성이 높고(이지연, 2007) 교육 목적으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노미연, 2017; 배고운, 2014) 일정 수준 이상의 어휘를 사용하는데다 미국보다 권력거리지수가 높고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한국(Hofstede et al. 2010)의 시청자가 권위의 상징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격식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구사력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고 1929년 취임한 허버트 후버 제31대 대통령 이래 최하라는 분석(Newsweek, 2018.1.8)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한국 대중의 기대수준과 차이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일관성 없는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빠르게 오가는 기자회견에서 통역사는 뉴스장르에 걸맞은 방송언어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원발화의 언어수준과 일반 시청자가 기대하는 대통령의 ‘격’에 맞는 언어 수준 사이의 간극도 좁혀야 하는 이중부담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생방송 동시통역에 대한 연구는 해외 및 국내 사례를 소개하고 훈련 방법을 소개한 광중철(2003)을 시작으로, 비생방송, 비전문가 통역, 자막/더빙과의 비교 등 방식에 대한 연구(Lee, 2006; 이태형, 2014, 2015), 수용자의 품질평가(김보애, 2013; 최문선, 2018), 수사적 요소나 이해용이성 관련 통역전략(이지은, 2010; 김한식, 2012) 등 다양한 주제로 이뤄져 왔으나 아직 격식성 관련 점에서 이뤄진 연구는 없다. 이에 본고는 대통령 기자회견 생방송 동시통역의 격식성 관련 전략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동시통역 사례를 분석한다. 먼저 격식성의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실제로 격식성이 낮았는지 여부를 전임 대통령 기자회견과의 정량적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한 뒤, 트럼프 발언내용 중 격식성 문제가 뚜렷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대상으로 6개 통역 텍스트를 비교해 격식성 관련 전략을 비교, 고찰한다. 이 주제의 선행연구가 없는 만큼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을 갖는 사례연구이며 규칙발견이나 품질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2. 이론적 배경

2.1. 격식성의 정의

‘격식성(formality)’을 명확히 정의한 학자는 많지 않으며 선행연구도 손에 꼽을 정도다. 언어학 관점에서 표준적인 형식과 발음에 최대한 근접하려는 경향으로 설명하거나(Labov, 1972), 인류학 관점에서 사회적 상황의 한 가지 측면으로 간주하는 정도(Irvine, 1979)다. 번역학자인 하티무와 먼데이(Hatim & Munday, 2004)는 격식성을 담화의 대인적 측면인 테너(tenor)와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하면서도 명확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다. 격식성을 가장 명확히 정의한 학자는 하이리겐과 드웨일(Heylighen & Dewaele, 1999: 1-2)로, 개념적 모호성을 탈피하기 위해 격식성을 표층 격식성과 심층 격식성으로 구분한다. 이들에 따르면 표층 격식성은 관습이나 형식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층 격식성은 “맥락의존성과 표현의 모호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중의성을 회피”하는 것으로, “표현의 명확한 의미를 명시적으로 명료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형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가리키며 레지스터(register)나 화법(style)³⁾도 이 심층격식성에 좌우된다.

한국어에서 ‘격식’은 “격에 맞는 일정한 방식(표준국어대사전)”으로 정의되는데, ‘격’을 “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로 정의한 것을 보면 한국어에서 ‘격식성’은 언어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공손성과도 다른 모호한 개념이다. 한국어 연구에서 화법의 격식성은 대체로 경어법의 관점에서 논의되는데(강현화, 2012; 서지혜, 2012) 공식적 말하기에서조차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아주높임)’와 비격식체로 분류된 ‘해요체(두루높임)’가 혼재한다는 사실(유혜원, 2010: 75)에 비추어볼 때 경어법을 기준으로 한 국어학의 격식성은 영어 및 영어와 한국어 간 통역의 격식성을 판정하기에는 부적합한 개념이다. 또한 회의 같은 공식적인 상황이나 업무적인 대화는 ‘격식’으로, 그 밖의 개인적인 목적의 대화 상황은 ‘비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서지혜, 2012; 노대규, 1996) 격식성이 발화상황적 요소인지 문체적 요소인지 불분명하다. 이는 한국어에서 학술적 개념으로서의 격식성이 공적-사적 영역의 구분 및 존대와 예절을 핵심 요소로 하는데 비해 영어의 격식성은 의사소통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 준수에 초

점을 맞추는 등 개념적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두 언어를 포괄할 수 있는 격식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는 하이리젠과 드웨일(1999)의 심층 격식성 개념을 따라, 격식성을 ‘공식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가 명확한 의미를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형식’으로 정의하고, 격식성의 구체적인 기준 및 구성요소를 트럼프 대통령 발화 및 언어구사에 대한 선행연구들(Ahmadian et al., 2017; Golshan, 2016; Lakoff, 2016; Rossman, 2017)을 따라⁴⁾ (1) do, it처럼 맥락의존도 높은 저난이도 어휘 사용 (2) 불필요한 어휘 반복 (3)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장구성 (4) 간투사⁵⁾ 사용 등 네 가지를 공식적 상황에서 명확한 의미 전달을 가로막는 언어형식이자 국어사전적 개념인 ‘격’에 맞지 않는 언어사용으로 간주하고 이를 격식성 분석의 틀로 사용하기로 한다.

2.2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과 격식성

한국에서 대통령의 수사나 화법이 언어적 관점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시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다(이귀혜 외, 2008).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기존의 권위주의에서 탈피한 화법으로 화제를 일으킨 동시에 논란을 야기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언론의 비판적 보도⁶⁾로 일반 국민들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화법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ibid., 26). 지금도 대통령의 격식을 탈피한 행동이나 화법이 뉴스가 되고 대선에서 후보들의 화법이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보도된다는 사실⁷⁾은 대통령 화법의 격식성에 대한 한국 대중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 또한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유세를 펼칠 때부터 화제가 됐다. 국수주의적,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발언 등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여타 대통령에게서 찾기 힘든 특유의 단순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인해 언론은 물론, 학계로부터 많은 관심과 비판을 받아왔다(Lakoff, 2016; Ott, 2017; Tannen, 2016; Shafer, 2015; Murphy, 2016; Schwartz, 2016). 특히 언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미국 역대 대통령과 여타 정치인과 비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인데, TV 토론에 참여한 공화당 대선후보들의 화법을 비교한 새보이(Savoy,

2018)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균문장길이, 어휘밀도⁸⁾, 고난도 어휘⁹⁾, 타입-토큰 비율(TTR) 4가지 기준 모두에서 분석대상인 대선후보 9명 중 최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표1].

[표 1] 대선후보 간 화법 비교(Savoy, 2018: 148)

Measurements	Bush	Cruz	Kasich	Paul	Rubio	Trump	Clinton	O'Malley	Sanders
MSL	17.3	19.4	18.3	17.2	18.7	13.7	20.5	21.9	19.7
LD (%)	40.7	44.6	38.4	40.3	39.2	36.6	40.4	43.1	43.6
BW (%)	24.4	26.4	20.8	21.9	23.8	18.3	24.1	25.6	26.4
TTR	36.1	37.3	33.9	34.0	33.3	29.7	36.2	37.9	36.1

공화당 대선후보 9명의 연설을 분석한 아마디언 외(Ahmadian et al., 2017)에서는 트럼프 화법의 주된 특징 중 하나로 비격식성(informality)을 꼽는데 복잡도가 낮은 어휘(6자 이하 단어)와 간투사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레이코프(Lakoff, 2016)는 구체적인 설명 대신 어휘를 반복하는 경향을, 크로켓(Crockett, 2016)과 오토(Ott, 2016)는 단음절어 사용(Crockett, 2016; Ott, 2016)을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적 특징으로 꼽는데 모두 본 연구의 격식성 기준에 해당된다.

3. 연구방법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동영상(57분 40초)¹⁰⁾ 및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부분 전사본(ST, 9,017단어), 총 6개 방송사(지상파: KBS, MBC, SBS, 케이블: YTN, 종합편성채널: JTBC, 연합뉴스TV) 동시통역 동영상, 북한 핵문제에 대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여러 기자회견문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사본은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뒤 동영상과 대조해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기자의 질문 및 발언자 표시 문구(Q:, President:), 상황표시문구(“(laughter)”) 등을 삭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추출했다. 통역 전사본(TTn)은 ST를 네 가지 격식성 기준으로 코딩한 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통역내용을 전사해 사용했다.

낮은 격식성 문제를 통역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했는지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내용이 선행연구들 결과처럼 실제로 격식성이 낮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답변만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추출해 소규모 코퍼스를 만든 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과 비교했다. 부시가 총 5,573 단어에 불과해 오바마도 비슷한 수준인 5,545 단어를 확보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도 총 9,017 단어의 ST 중 두 전임자와 비슷한 분량인 5,554 단어를 사용해 총 16,672 단어로 구성된 소규모 코퍼스를 구축했다. 일문일답식 기자회견의 특성상 여러 기자회견에서 취합해도 발췌된 각 부분의 내적 논리(coherence)와 결속성(cohesion)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 다음 본고에서 설정한 격식성의 네 가지 기준, 즉 (1) 맥락의존도가 높은 저난이도 어휘로만 구성된 문장 (2) 불필요한 어휘/표현 반복 (3) 불완전한 문장 (4) 간투사(I mean, you know, well) 등 네 가지 지표에 각각 기호를 부여하고 이 기호를 사용해 세 대통령의 기자회견 텍스트를 코딩했다. 이 중에서 (3)과 (4)는 객관적 판정이 가능하지만 (1)과 (2)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 코딩의 객관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코퍼스 분석도구인 워드스미스(WordSmith)를 사용해 비교코퍼스인 전임 대통령 유사주제 기자회견의 타입-토큰 비율(TTR)과 평균 단어길이, 문장 수 및 문장당 평균 단어 수 등 어휘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1)과 (2)를 확인하고 MS워드의 이독성¹¹⁾ 분석 결과와도 비교해봤다. 그 다음 낮은 격식성 문제에 대한 통역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트럼프 기자회견 ST에서 (1)~(4)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통역 시 어떻게 처리됐는지 6개 TT를 비교하며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했다. 분류기준이 될 격식성 관련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1)~(4)별 대응전략의 특징에서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찾아 묶는 귀납적 방식으로 유형을 분류했다.

4. 분석결과

4.1.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의 격식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네 가지 격식성 기준을 적용해 전임자인 부시와 오바마가 유사한 주제로 했던 기자회견과 비교분석한 결과 트럼프 텍스트는 모든 기준에서 격식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맥락의존도가 높은 저난이도 어휘로만 구성된 문장이 두 전임 대통령은 0개인데 반해 트럼프는 21개로 많았고, 불필요한 구문 반복도 부시 3개, 오바마 0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68개나 됐으며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장도 부시 9개, 오바마 0개인데 비해 58개나 됐다. 간투사 I mean, you know, well 역시 51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시의 약 3배, 오바마의 약 7배로 훨씬 많았다.

[표 2] 기자회견 격식성 비교

	부시	오바마	트럼프
맥락의존적 단순어휘문장	0	0	21
불필요한 구문반복	3	0	68
불완전한 문장	9	0	58
간투사	16	7	51

위드스미스를 이용한 세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휘 분석 결과에서도 TTR,문장당 평균단어수, 평균단어길이를 비롯해 모든 주요 지표에서 트럼프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표3].

[표 3] 북한 핵문제 관련 기자회견 어휘 비교

	부시	오바마	트럼프
token	5,553	5,566	5,531
type	911	1,108	826
TTR	16.41	19.91	14.93
표준화된 TTR	32.62	37.32	30.1
문장 수	289	216	574

문장당 평균단어수	19.21	25.77	9.64
평균단어길이(자)	4.3	4.56	3.95
1자 단어	247	242	374
2자 단어	1,157	1,084	1,167
3자 단어	1,133	969	1,132
4자 단어	974	1,061	1,266
5자 단어	659	707	605
6자 단어	366	323	318
7자 단어	392	363	282
8자 단어	218	273	168
9자 단어	216	236	131
10자 단어	95	116	57
11자 단어	53	96	27
12자 단어	26	48	13
13자 단어	10	36	11
14자 단어	7	5	6
15자 단어	1	4	3
16자 단어	0	10	6

TTR이 낮다는 사실은 어휘 다양성이 적고 동일어휘 반복사용이 많음을 의미한다. 트럼프가 사용한 문장 수는 574개로 부시(289개)와 오바마(216개)에 비해 두 배가 넘지만 문장당 평균단어수는 오히려 부시의 절반, 오바마의 거의 1/3 수준에 그쳐 문장이 짧고 단순함을 유추할 수 있고 실제로 트럼프 기자회견 텍스트 분석과정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난도 어휘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자 이상인 단어부터 상대적 빈도가 떨어지기 시작해 오바마 대비 2-3배까지 격차를 보였다. 특히하게 14자, 16자 단어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북미정상회담 핵심어인 nuclearization과 denuclearization이 각각 14자, 16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비표준형인 denuke/denuking으로 줄여 말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 화법의 비격식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와 부시에서는 denuke/denuking이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오바마에서는 모두 denuclearization으로 표현됐고 부시에서는 이 단어가 아예 사용되지 않았다. 부시 재임 당시만 해도 아직 북한 핵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어휘 다양성에서 큰 격차를 보인 오바마와 비교해보면, 최빈도

어휘 상위 100개 중 내용어와 기능어의 비율은 트럼프가 내용어 42개, 기능어 58개, 오바마가 40개, 60개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상위 200개까지 확대해도 트럼프는 내용어 115개, 기능어 85개, 오바마는 내용어 116개, 기능어 84개로 거의 비슷했다. 이는 명제적 의미 구성방식 자체는 두 지도자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개별 어휘와 문장의 난이도 및 다양성에서 격차가 벌어졌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상위 100개 및 200개 어휘를 나열해 단순길이만 비교해봐도 오바마쪽이 훨씬 길고 고급어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MS워드의 이독성 분석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표 4). 난이도는 오바마가 가장 높았고 학년수준도 거의 12학년에 해당된 반면, 트럼프는 난이도가 가장 낮고 문장수준 또한 채 4학년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임자들에 비해 확실히 격식성이 낮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4] 북한 핵문제 관련 기자회견 어휘 비교

	부시	오바마	트럼프
Flesch 문장난이도	65.9	52.3	84.8
Flesch-Kincaid 학년수준	8.6	11.9	3.7

4.2. 격식성 통역 전략

ST에서 4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 6개 TT에서 사용된 통역 유형을 조사한 결과 크게 ST유지, 보완, 생략/누락의 세 가지로 분류됐다(표5).¹²⁾ 생략과 누락을 한 항목으로 묶은 이유는 이것이 정보처리의 한계로 인한 누락인지 의도적 혹은 전략적 생략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 가지 전략¹³⁾ 중에서 ST유지는 가장 사용빈도가 낮아 격식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통역 전략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5. 격식성 통역 유형]

		TT1	TT2	TT3	TT4	TT5	TT6
맥락의존	유지	5	1	4	3	5	2
단순구문		(23.8%)	(4.8%)	(19%)	(14.3%)	(23.8%)	(9.5%)

	보완	4 (19%)	7 (33.3%)	10 (47.6%)	9 (42.6%)	6 (28.6%)	8 (38.1%)
	생략	12 (57.1%)	13 (61.9%)	7 (33.3%)	9 (42.9%)	10 (47.6%)	11 (52.4%)
	계	21 (100%)	21 (100%)	21 (100%)	21 (100%)	21 (100%)	21 (100%)
불필요한 어휘반복	유지	2 (2.9%)	5 (7.4%)	8 (11.8%)	10 (14.7%)	6 (8.8%)	6 (8.8%)
	보완	5 (7.4%)	5 (7.4%)	12 (17.6%)	4 (5.9%)	1 (1.5%)	2 (2.9%)
	생략	61 (89.7%)	58 (85.3%)	48 (70.6%)	54 (79.4%)	61 (89.7%)	60 (88.2%)
	계	68 (100%)	68 (100%)	68 (100%)	68 (100%)	68 (100%)	68 (100%)
불완전한 문장	유지	1 (1.7%)	2 (3.4%)	0 (0%)	0 (0%)	1 (1.7%)	3 (5.2%)
	보완	34 (58.6%)	35 (60.3%)	37 (63.8%)	32 (55.2%)	31 (53.4%)	26 (44.8%)
	생략	23 (39.7%)	21 (36.2%)	21 (36.2%)	26 (44.8%)	26 (44.8%)	29 (50%)
	계	58 (100%)	58 (100%)	58 (100%)	58 (100%)	58 (100%)	58 (100%)
간투사	유지	0 (0%)	0 (0%)	1 ¹⁴⁾ (2%)	0 (0%)	0 (0%)	0 (0%)
	생략	51 (100%)	51 (100%)	50 (2%)	51 (100%)	51 (100%)	51 (100%)
	계	51 (100%)	51 (100%)	51 (98%)	51 (100%)	51 (100%)	51 (100%)

먼저 맥락의존적인 단순어휘로만 구성된 구문의 경우, 세 가지 전략 중 '생략'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맥락을 통해 추론 가능한 정보는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한국어의 고맥락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답변의 핵심에 해당돼 생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유지보다는 보완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1>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으로, do나 things처럼 맥락의존적이고 단순한 어휘로 구성된 구문이 반복된 것을 TT에서는 모두 '의지,' '변화,' '조치,' '노력,' '해결' 등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한자어를 사용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격식성을 높였음을 알 수 있다.

〈예1〉

ST: But they will be doing things, and I think he wants to do things.

TT1: 그런데 김 위원장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TT2: 그리고 분명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무언가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TT3: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도 조치를 취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TT4: 하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TT5: 하지만 인권 문제도 논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T6: 김 위원장이 이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불필요한 어휘나 구문 반복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비중으로 ‘생략’이 사용됐는데, 〈예2〉의 we’re going to...와 a lot of를 사용한 단순 반복을 생략 및 압축해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격식성을 높였다(예2).

〈예2〉

ST: Secretary Pompeo has been really doing a fantastic job – his staff, everybody. As we do that, we’re going to have a lot of people there, and we’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m on a lot of other things.

TT1: 폼페이오 국무장관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검증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TT2: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많은 보좌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을 할 것입니다.

TT3: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직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후속 회담에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슈 말고도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 작업을 할 것입니다.

TT4: 그리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환상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수행중입니다.

TT5: 폼페이오 장관이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검증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TT6: 폼페이오 국무장관께서 여기에 굉장한 기여를 하셨구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와도 함께 일을 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문장의 경우 ‘보완’이 주된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3>은 남북 일 본인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계속 이어지자 누락으로 추정되는 TT1을 제외한 나머지 TT 모두 보완을 통해 격식성을 높였다.

<예3>

ST: Yeah, it did – abduction. Absolutely. This is Prime Minister Abe’s – one of his, certainly – other than the whole denuking subject – certainly his, I would say, his main point. And I brought it up. Absolutely. And they’re going to be working on that. It will be – we didn’t put it down in the document, but it will be worked on.

TT1: ∅ 저희가 성명서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

TT2: 언급한 내용은 물론 대화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사실 비핵화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납치자들에 대한 이슈이고 그 얘기도 물론 나눴습니다. 물론 문서화되지는 않았습시다만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

TT3: 네, 아베 신조 총리와의 이야기를 나눴습시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비핵화는 이 총리께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서명에 언급이 되지는 않았습시다. 명문화되지는 않았습시다만 이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TT4: 납북자 문제에 관해서 아베 총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베 총리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이었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공동성명서엔 들어가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TT5: 납치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납치 문제는 물론 비핵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합의문엔 없지만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TT6: 아베 총리도 비핵화 문제 말고도 북한에 지금 억류돼 있는 일본인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구요. 아베 총리도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곧 논의할 것입니다.

간투사에 대한 주된 전략은 ‘생략’이었는데 <예4>처럼 불완전한 문장과 섞인 경우 간투사 생략과 불완전한 문장 보완을 조합해 격식성을 높였다. 이 예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북한은 반대급부로 무엇을 주느냐는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고 형식수설하는 부분으로, you know나 I mean 같은 간투사와 더불어 불완전한 문장으로 흐름이 끊겨 의미가 모호하다. 이에 대해 TT3을 제외한 모든 TT가 간투사를 생략했고, TT3처럼 정보처리 한계로 인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있더라도 불완전한 문장만큼은 보완하는 식으로 격식성을 높이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예4>

ST: Well, we've gotten - you know, I've heard that. I mean, some of the people that - I don't know, maybe they really mean it. I don't always want to go against the press because I just don't - especially not today, this is too important. But I noticed that some of the people were say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meet, he has given up so much. I gave up nothing.

TT1: 예, 제가 듣기로는, 실제 진심일 수도 있고 언론에 대해서 제가 항상 반박하고 싶은데요, 너무 중요한 날이니까요, 어쨌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대통령이 만나기로 합의했다,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 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TT2: 제가 언론을 항상 반박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론의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드디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한다,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TT3: 글썄요.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면, 대통령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0 ...

TT4: 어쨌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TT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언론에 반박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걸 포기했다, 얻은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TT6: 오늘은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예4>의 TT들에서 정확성과 별개로 모두가 어떻게든 격식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확성이 중요한 뉴스장르의 경우, 발화자가 황설수설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상번역이라면 이런 장면의 경우 말줄임표(...)를 사용하거나 더듬거리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 화자의 심리상태를 표현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격식성을 높이려는 경향성은 통역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5. 나가는 말

중대한 국가 현안에 대한 대통령 기자회견은 뉴스 장르에 해당되는 만큼 시청자가 기대하는 격식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맥락의존적인 단순어휘만을 사용한 문장, 불필요한 구문반복, 불완전한 문장, 간투사 사용 등 네 가지 격식성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6개 방송사 통역 모두 트럼프 대통령 발화의 낮은 격식성 수준과 시청자의 높은 격식성 기대수준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원 발화의 격식성이 낮은 표현을 가급적 생략하거나 보완하는 식으로 격식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필요한 반복과 간투사는 생략을 사용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불완전한 문장은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고 ST에 비해 높은 난이도의 한자어를 사용함으로써 격식성을 높였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사실보도와 정확성이 중요한 뉴스장르에서 이처럼 격식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바람직하거나 타당한 것인지 그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본 연구는 방송통역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격식성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는 한 가지 사례만을 분석한 것이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로 격식성이 높은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 통역의 격식성 조절 양상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듯하다. 또다른 한계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격식성 기준이 연구자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격식성을 높이려는 경향성이 결국 통역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품질평가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직관적으로 통역을 평가하게 되는 시청자 입장에서 목소리와 발음 등 준언어적 요소와 격

식성을 분리해낼 수 있을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고찰해봐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로 본고의 한계들이 극복되고 방송통역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화 (2012). 한국어교육에서의 담화 기반 문법 연구 - 부정 표현의 맥락 문법을 활용하여.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1), 201-212.
- 곽중철 (2003). 해외위성정보프로그램 동시통역 훈련방법 연구. 통번역학연구. 7, 1-39.
- 김보애 (2013). 방송통역의 충실성과 퍼포먼스가 수용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인문언어. 15(3), 239-260.
- 김한식 (2012). 방송통역의 충실성과 이해용이성 — TV뉴스의 한-일 동시통역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90, 15-24.
- 노미연 (2017). TV 뉴스를 활용한 고급 한국어 듣기 교수 방안 연구. 동악어문학. 71, 289-318.
- 배고운 (2014). 학습 동기 및 어휘력 향상을 위한 TV 뉴스 활용방안 연구. 한국어문화교육. 8(1), 61-85.
- 서지혜 (2012). 맥락을 고려한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 -요청 화행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23, 111-135.
- 오승신 (1997). 담화상에서의 간투사의 기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2, 53-86.
- 유혜원 (2010). 말하기 교육을 위한 격식 표현 연구. 교양교육연구. 4(1), 73-93.
- 이귀혜, 강남준, 이종영 (2008). 탄핵 시기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학 연구 : 컴퓨터 언어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韓國言論學報. 52(5), 25-55.
- 이지연 (2007). TV 방송 뉴스 번역의 특성 - 격식성과 정중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263-282.
- 이지은 (2010). 수사 통역: 오바마 대통령 취임사 동시통역 텍스트 분석. 통역과 번역. 12(2), 181-206.
- 이태형 (2000). 아카데미상 시상식 텔레비전 생방송 동시통역의 시간적 양상 연구. 통역과 번역. 2, 85-110.
- 이태형 (2014). 비전문가에 의한 스튜디오 생방송 동시통역. 통역과 번역. 16(3), 147-167.

- 이태형 (2015). 국제부 기자의 TV 생방송 영한 동시통역. 통역과 번역. 17(3), 139-162.
- 최문선 (2018). TV통역 품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 생방송 동시통역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6(3), 195-224.
- Ahmadian, S., Azarshahi, S., & Paulhus, D. L. (2017). Explaining Donald Trump via communication style: Grandiosity, informality, and dynam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7, 49-53.
- Hatim, B., & Munday, J. (2004). *Translation: An advanced resource book*. New York: Routledge.
- Heylighen, F., & Dewaele, J-M. (1999). Formality of language: definition, measurement and behavioral determinants. Internal Report, Center "Leo Apostel", Free University of Brussels.
- Hofstede, G., Hofstede, G. H. & Minlov, M.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London: McGraw Hill.
- Irvine, J. T. (1979). Formality and informality in communicative events, *American Anthropologist* 81, 773-790.
- Kurz, I. (1997). Getting the message across - simultaneous interpreting for the media. In M. Snell-Hornby, Z. Jettmarová, & K. Kaindl (Eds.),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Selected papers from the EST Congress, Prague 1995*. Amsterdam: John Benjamins, 195-206.
- Labov, W. (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University of Philadelphia Press, Philadelphia.
- Lee, T. (2006). A comparison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nd delayed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rom English into Korean. *Meta*, 51(2), 202-214.
- Lee, T. (2011). English into Korea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of

Academy Awards Ceremony through open captions on TV. *Meta*, 56(1), 145-161.

Ott, B. L. (2017). The age of Twitter: Donald J. Trump and the politics of debasement.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34(1), 59-68.

Savoy, J. (2018). Analysis of the style and the rhetoric of the 2016 US presidential primaries. *Digital Scholarship in the Humanities*, 33(1), 143-159.

〈인터넷 자료〉

Burleigh, N. (2018). Trump Speaks at Fourth-Grade Level, Lowest of Last 15 U.S. Presidents, New Analysis Finds. Retrieved September 28, 2018, from <https://www.newsweek.com/trump-fire-and-fury-smart-genius-obama-774169>

Crockett, Z. (2016). What I Learned Analyzing 7 Months of Donald Trump's Tweets. Retrieved September 28, 2018, from <https://www.vox.com/2016/5/16/11603854/donald-trump-twitter>

Golshan, T. (2016). Donald Trump's Strange Speaking Style, as Explained by Linguists. Retrieved September 28, 2018, from <https://www.vox.com/2016/8/18/12423688/donald-trump-speech-style-explained-by-linguists>

Lakoff, G. (2016). Understanding Trump. Retrieved September 29, 2018, from <https://georgelakoff.com/2016/07/23/understanding-trump-2/>

Murphy, L. (2016). Linguistics Explains Why Trump Sounds Racist When He Says "the" African Americans. Retrieved August 31, 2018, from <https://qz.com/806174/second-presidential-debate-linguistics-explains-why-donald-trump-sounds-racist->

when-he-says-the-african-americans/

- Rossman, S. (2017). Trump's Repetitive Rhetoric Is a Trick Used in Advertising. Retrieved September 28, 2018, from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onpolitics/2017/02/16/mess-fake-news-disaster-trumps-repetition-advertising-tactic/98014444/>
- Shafer, J. (2015). Donald Trump talks like a third-grader. Retrieved September 29, 2018, from <https://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5/08/donald-trump-talks-like-a-third-grader-121340>
- Swartz, T. (2017). I wrote 'The Art of the Deal' with Trump. His self-sabotage is rooted in his past. Retrieved October 1, 2018,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posteverything/wp/2017/05/16/i-wrote-the-art-of-the-deal-with-trump-his-self-sabotage-is-rooted-in-his-past/?utm_term=.03b09eecef17
- Tannen, D. (2016). Donald Trump used sexism to attack Hillary Clinton. He lost. Retrieved September 28, 2018, from <http://time.com/4524957/presidential-debate-donald-trump-sexism/>

송연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조교수

전공언어: 영어

관심분야: 미디어통번역

E-mail: yonsuk@gmail.com

1) 위성을 통해 생중계된 해외방송을 TV 생방송으로 동시통역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방송통역, 생방송 동시통역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방송통역은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통역도 포함하

- 는 개념이라(김한식, 2012) 본고에서는 '생방송 동시통역'을 사용하기로 한다.
- 2) 일반적인 뉴스보도형식은 앵커멘트→ 기자의 도입멘트 → 관련인물 인터뷰 → 기자의 부연설명 → 기자의 마무리멘트(장소원, 2003)로 구성되는데 트럼프 기자회견은 '관련 인터뷰' 부분만 기자회견 통역으로 대체했을 뿐 나머지는 일반 뉴스보도형식과 동일하며 뉴스프로그램의 일부로 편성됐다는 점에서도 뉴스장르에 해당된다.
 - 3) 본고에서 '화법'은 style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style은 흔히 '문체'로 번역되지만 문체는 '글쓴이에 따라 그 특성이 문장의 전체 또는 부분에 드러난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처럼 문어체를 연상케 하는 말이라 즉흥적인 구어담화만을 분석하는 본고에서는 '화법'을 술어로 대용한다.
 - 4) 예컨대 골선이 지적한대로 2015년 7월 21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 중 이란 핵협정 관련 발언만 봐도 격식성 문제가 바로 드러난다. "Look, having nuclear – my uncle was a great professor and scientist and engineer, Dr. John Trump at MIT: good genes, very good genes, okay, very smart, the Wharton School of Finance, very good, very smart – you know...."
 - 5) 'I mean,' 'you know' 같은 군말(filler)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장 사이에 끼어들어 응답 보류나 회피 등 담화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말을 가리킨다(오승신, 1997). 간투사를 사용해 응답을 보류 혹은 회피하는 것은 명확한 의미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형식에 어긋나므로 격식성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 6) "대통령의 '거친 화법'에 국민들 마음이 찢어지고" (동아일보, 2006.12.30.), "노대통령 직설적 화법 외교갈등 부채질" (조선일보, 2003.4.8.), "고은 시인, '노대통령의 언어는 대통령 언어 아니다'" (동아일보, 2007.6.14.)
 - 7) "문재인 '어눌 화법' 편견 깎자..노련미 과시"(노컷뉴스, 2017.3.3.), "어안이 병병," "장난질 멈춰라"..안철수의 직설화법" (동아일보, 2017.10.17.), "문재인 '선비화법' v 안철수 '그로울링'..화법 대결 관전포인트"(국민일보, 2017.4.6)
 - 8)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당하는 내용어(content words)와 관사,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등 문법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능어(function words)의 비율로 계산하며, 내용어가 많을수록 어휘밀도가 높다.
 - 9) 6자 이상인 단어
 - 10) 모두발언(약 8분)은 준비된 원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기자회견과 성격이 다르므로 제외했다.
 - 11) 난이도를 숫자를 이용한 등급으로 나타내주는 기능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이해하기 쉬움을 의미하는 Flesch Reading Ease 점수와 미국 학년 수준(예컨대 8.0이면 8학년 수준)을 의미하는 Flesch-Kincaid Grade Level로 구성된다.
 - 12) 본 연구는 트럼프 대통령 화법의 특징에 따른 격식성 통역 전략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일반적인 통역 상황에서의 유사 전략 사용 양상은 논외로 한다.
 - 13) 분류는 절을 기본 단위로 하되 전략은 빈도 및 분포 파악을 위해 중복계수했다.
 - 14) 'well'을 '글썄요'로 유지